

水落臺九曲과 水落臺漁歌九曲詩 연구

金 文 基*

Ⅰ 차례

- I. 서 론
- II. 權訪의 水落臺九曲 설정과 경영
- III. 園林的 특징과 詩世界
- IV. 결 론

【 국문초록 】

예천지방에 존재하는 殷山九曲과 水落臺九曲에 대한 학술조사를 실시하여 각 구곡의 위치를 고증하고 그 원림적 특징도 추출하였다. 은산구곡에 대한 구곡시는 찾을 수 없었으나 수락대구곡에 대한 구곡시는 3편이나 전하고 있었다.

영주 봉현의 池方山에서 발원한 석관천이 내성천으로 흘러들면서 결절된 승지가 바로 수락대이고 이곳을 전후로 하여 설정된 구곡이 바로 수락대구곡이다.

수락대구곡 원림을 가정 먼저 설정한 사람은 四勿齋 宋相天이었으나 본격적으로 설정하고 경영한 사람은 鶴林 權訪이다. 수락대구곡시는 송상천이 젊은 시절 권방의 은거지인 수락대를 방문하고 「水落臺九曲詩」를 지어 권방에게 보내자 권방이 이에 화답하는 「水落臺漁歌九曲詩」를 지었으며 뒤에 권방의 구곡시에 대해 石窩 權禕가 차운하여 「水落臺九曲詩」를 지었던 것이다.

권방이 설정한 수락대구곡은 제1곡이 觀魚臺, 제2곡이 聽澗亭, 제3곡이 江南曲, 제4곡이 南山陲, 제5곡이 虹橋, 제6곡이 石門塢, 제7곡이 石出臺, 제8곡이 水落臺, 제9곡이 登瀛谷이다.

* 경북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본고에서는 권방이 수락대구곡을 설정하고 경영한 과정과 수락대구곡의 원림적 특징을 분석하고, 권방이 지은 「水落臺漁歌九曲詩」의 시세계를 고찰하였다.

권방은 「水落臺漁歌九曲詩」를 통하여 수락대구곡을 道에 이룰 수 있는 淸淨의 空間으로 보았으며 그가 추구한 것은 別유천이 아니라 平常의 道임을 드러내었다.

주제어

수락대구곡, 수락대어가구곡시, 수락대구곡시, 구곡원림, 구곡시, 무이도가, 무이구곡, 수락대, 은산구곡, 예천지방

I. 서 론

朱子가 경영했던 武夷九曲과 같은 九曲園林이 경북 지역에 많이 있고 특히 兩白地域인 경북 북부의 안동, 문경, 영주, 봉화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¹⁾ 그런데 醴泉은 양백지역에 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유학자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구곡원림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럴 리가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꾸준히 예천지방의 구곡원림을 찾던 중, 지난해 봄에 예천군 상리면과 하리면에 걸쳐 있는 殷山九曲에 대한 학술조사를 실시하여 그 존재를 확인하고 구곡의 위치를 고증할 수 있었다. 또한 감천면의 수락대 근처에 구곡원림이 존재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2차에 걸친 학술조사를 통하여 水落臺九曲 園林을 발굴하였을 뿐만 아니라 3편의 水落臺九曲詩를 발견하고 이를 분석, 연구하게 되었다.

그런데 수락대구곡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수락대는 감천면 덕울리와 포2리에 걸쳐 있는 石串川 계곡의 승경이다. 영주 봉현의 池方山에서 발

1) 안동시에는 8개의 구곡이 존재하고 있으며 문경시에는 7개, 영주시에는 6개, 봉화군에는 5개의 구곡원림이 존재하고 있다.

원한 석관천이 내성천으로 흘러들면서 결절된 승지가 바로 수락대이고 이곳을 전후로 하여 설정된 구곡이 바로 수락대구곡이다.

특히 1602년 봄에 西厓 柳成龍이 제자들과 단산지방을 유람하다가 귀향길에 수락대를 들러 그 아름다운 경치를 “찬 물방울이 흩어져 떨어지는 것이 맑은 날에 눈이 흩날리는 것 같다.”²⁾고 극찬하면서부터 경상도 북부의 선비들이 다투어 이곳의 경치를 즐겨 완상하고 詩會를 열기도 하였다. 1661년에 서애의 제자 鶴沙 金應祖가 중심이 되어 詩社를 결성하고 仙遊錄을 남겼으며 근자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회가 열려 수종의 詩會錄을 남겼다.³⁾

수락대구곡 원림을 경영했던 유학자는 鶴林 權訪(1740~1808)과 社勿齋 宋相天(1766~1804)이었고, 水落臺九曲詩를 남긴 이는 권방, 송상천, 石窩 權禕(1762~1835)이다. 본고에서는 권방이 수락대구곡을 설정하고 경영한 과정과 수락대구곡의 원림적 특징을 분석하고, 권방이 지은 「水落臺漁歌九曲詩」의 시세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II. 權訪의 水落臺九曲 설정과 경영

수락대구곡은 鶴林 權訪이 예친군 보문면과 감천면을 흐르는 石串川에

2) “寒涼散落 白日飛雪”(放汕 趙鳳遠, 水落臺創建記)

3) 각종 시회록의 원본과 필사본은 다음과 같다.

신축년(1661) 9월작성원본 - 仙遊錄(서문 홍여하)

계사년(1833) 水落臺同遊錄(서문 박시원, 조현좌)

계미년(1883) 9월작성 - 전후 續遊錄(서문 권대신)

정미년(1907) 12월작성 - 水落臺 仙會錄(발문 권혜운)

신미년(1991) 3월작성 - 甘林叢錄 水落臺(서문 조광영)

(趙東潤 編著, 水落臺仙會錄, 아이컴, 2011. 참조.)

설정하고 경영했던 구곡원림이다. 그런데 수락대구곡을 가정 먼저 설정한 사람은 四勿齋 宋相天이었다. 송상천이 젊은 시절 권방의 은거지 수락대를 방문하였다가 이곳의 가정에 감응을 받아서 수락대구곡을 설정하였다.⁴⁾ 그리고 「水落臺九曲詩」를 지어 권방에게 보내니, 권방이 이에 화답하는 「水落臺漁歌九曲詩」를 지으면서 수락대구곡을 본격적으로 경영하였다.⁵⁾ 그 뒤, 권방의 구곡시에 대해 石窩 權禕가 차운하여 또 「水落臺九曲詩」를 지으면서 수락대구곡은 구곡원림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⁶⁾ 권방은 그의 「수락대어가구곡시」의 서문에 수락대구곡의 설정과 경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나는 性이 바야흐로 졸렬하여 스스로 쓰일 곳이 없어 산수의 의취만 품을 줄 알았다. 병술년(1766) 가을에 뜻을 정해 餘洞에 들어가니 수락대의 경치를 취한 것이다. 정해년(1767)과 기축년(1769)에 두 차례 세상일에 남북으로 분주히 다니니 임진년(1772) 봄에야 비로소 살 곳을 정하였다. 몸소 밭을 갈고 나서 여가에 시내를 따라 오르내리며 길게 읊조리고 한가롭게 노닐면서 여생을 마칠 계획을 삼았다.⁷⁾

권방은 1766년 餘洞에 들어가 수락대에 은거하였다. 1767년 釋菜祭의 獻官에 제수되어 벼슬살이를 하다가 무고로 河東에 유배되는 등 세상일로 수락대를 떠났다가 1772년이 되어서야 수락대에 돌아올 수 있었다. 그는 이곳에서 몸소 밭을 갈며 농사를 지으면서 틈이 나면 석관천을 따

4) 『四勿齋集』 卷1 「詩」, 〈水落臺謹次權歌十首呈鶴林權丈訪〉

5) 『鶴林先生文集』 卷2 「詩」, 〈和宋敬輔相天 水落臺漁歌九曲〉

6) 『石窩文集』 卷1 「詩」, 〈謹次鶴林集中水落臺九曲用武夷權歌韻〉

7) “余性方拙 自知無用 只抱山水之趣 丙戌秋 決意入餘洞 蓋取水落泉石之勝也 丁亥 己丑 再罹世網 奔走南北 壬辰春 始定居焉 躬耕之暇 沿溪上下 舒嘯優遊 爲終焉之計” 『鶴林先生文集』 卷2 「詩」, 〈和宋敬輔相天 水落臺漁歌九曲〉 并序

라 오르고 내리면서 시를 읊조리고 한가롭게 노닐었는데 경관이 너무 아름답다워 이곳에서 여생을 마칠 마음을 먹었다. 그러나 가난이 날로 심해 몇 칸의 띠집도 지을 수 없고 자손이 대대로 살기가 어렵자 고향을 생각하게 되면서 1796년에 마침내 가족을 데리고 鶴駕山 남쪽에 옮겨서 살았다. 그는 비록 학가산 남쪽에 살았지만 언제나 여동의 煙霞를 생각하였고 일찍이 서쪽을 바라보며 크게 탄식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⁸⁾

그러던 어느 해 봄에 송상천이 수락대에 질병을 피해서 왔다가 수락대의 산수를 다 유람하고 주자의 「武夷權歌」에 차운하여 구곡시를 지어서 권방에게 보냈다. 구곡시를 읽고 나서 권방은 그의 몸이 마치 수락대 산수에 있는 듯하다고 하였다. 송상천이 설정한 수락대구곡의 아홉 굽이는 권방이 생각하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권방은 수락대구곡을 다시 설정하였는데 江南曲 虹橋 登瀛谷 세 굽이는 권방이 송상천의 의견을 따랐고 南山陔는 권방이 전에 명명한 것이었다. 다만 石出臺는 권방이 들에 새긴 이름을 송상천이 처음에는 따랐는데 그 뒤에 지명이 바뀐 것인지 그는 이 굽이를 석출대라고 이름하지 않고 招隱臺라 명명하였다. 그러나 권방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⁹⁾ 이렇게 권방은 송상천의 의견을 참고하였으나 자신의 의지대로 수락대구곡을 완성하였다. 권방이 설정한 수락대구곡은 제1곡이 觀魚臺, 제2곡이 聽澗亭, 제3곡이 江南曲, 제4곡이 南山陔, 제5곡이 虹橋, 제6곡이 石門塢, 제7곡이 石出臺, 제8곡이 水落臺,

8) “但窮約日甚 既不得置數椽茅屋 且不利嗣續 返思首邱 逮丙辰 挈挈而來 寓鶴山之陽 然每想洞天烟霞 未嘗不西望太息也” 『鶴林先生文集』 卷2 「詩, 〈和宋敬輔相天 水落臺漁歌九曲〉并序

9) “今年春 廣川 宋敬輔 避地于斯 凡溪山物色 莫不窮極探討 收拾肺腑 乃次朱先生武夷九曲歌 以示之 風篁展讀 恍然若身坐巖厓 與之評品吟弄 起予之歎 其在斯矣 第所謂九曲者 與余之所排比者 大同而小異 蓋江南曲 虹橋 登瀛谷 三曲 余之從敬輔者也 南山陔者 余之前所命者也 石出臺者 敬輔從余石刻之名 而不知晚後改定者也” 『鶴林先生文集』 卷2 「詩, 〈和宋敬輔相天 水落臺漁歌九曲〉并序

제9곡이 登瀛谷이다.¹⁰⁾



▲ 수락대구곡 위치도

권방은 조선 후기 문신이며 학자이다. 자는 季周이고 호는 鶴林이며 본관은 安東이다. 大山 李象靖의 문하에서 수학하여 1763년 증광시 생원에 합격하였다. 1767년 문묘에서 공자의 제사를 지내는 釋菜祭의 獻官에 제수되었으나 무고로 河東으로 유배되었다. 유배에서 풀려난 권방은 수락대에 은거하며 한가로운 삶을 살았다. 그러다가 1783년 증광시 병과 22위로 문과에 급제한 후, 承文院副正字에 제수되었으며 1787년 宗簿寺主簿가 되었다가 12월에 昌陵令으로 옮겼으나, 1788년 부친상을 당하여 낙향하였다. 1792년 司憲府監察, 1793년 兵曹佐郎에 제수되었으나 사직하고 학가

10) 송상천이 설정한 수락대구곡은 권방이 설정한 수락대구곡과는 명칭과 지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 송상천이 설정한 수락대구곡은 제1곡이 觀魚臺, 제2곡이 枕澗亭, 제3곡이 塔洞, 제4곡이 江南曲, 제5곡이 虹橋, 제6곡이 石門塢, 제7곡이 招隱臺, 제8곡이 上水臺, 제9곡이 登瀛谷이다.

산 남쪽에 은거하였다. 1807년 奎羅都事에 임명되었지만 병으로 부임하지 못하고 이듬해 11월 생을 마감하였다.¹¹⁾

송상천은 본관이 冶爐이고 자가 敬一이며 호가 四勿齋이다. 1766년에 경북 醴泉에서 출생하였다. 어려서부터 총명함이 남달라 글을 읽을 때면 10행을 내리 읽으며 그 글을 모두 기억하고 잊지 않았다. 1787년 觀察使가 만나기를 원했으나 선비의 지조를 굽히지 않았다. 出世揚名에 뜻을 두지 않은 채 孝養에 전념하며 당대의 유명한 학자들과 性理學 연구에 진력하였다. 나이 스물에 이미 文筆로 이름을 드러냈으나 불행히도 39세에 세상을 떠나니 士林이 그의 죽음을 애석해 하였다.¹²⁾

권위는 조선 후기 유학자이다. 자는 懿甫이고 호는 石窩이며 본관은 安東이다. 대산大山 李象靖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1789년 식년시 생원 3등 2위로 합격하였다. 그러나 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 낙향한 후, 定齋 柳致明 등과 교유하며 학문과 후진 양성에 힘썼다.¹³⁾

羅峙峯峯併地靈	늘어선 산들과 연화봉은 모두 땅이 신령해
糝成洞府一溪清	수락대 동부를 두르니 흐르는 시냇물 맑네
權歌今作漁家傲	지금 지은 어부가를 어부들 흥겹게 부르니
水滌山蒼歛乃聲	물이 푸르고 산이 푸른 곳엔 어부가 들리네 ¹⁴⁾

권방은 수락대구곡을 신령한 굽이이고 청정한 곳이라고 생각하였다. 수락대구곡이 신령할 수 있었던 것은 둘러 있는 산과 연꽃 모양의 봉우리가 신령한 기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 청정할 수 있었던 것은 그

11) 『鶴林先生文集』 卷12 「附錄」 〈行狀〉
 12) 『四勿齋集』 卷4 「附錄」 〈行狀〉
 13) 『石窩文集』 卷4 「附錄」 〈行狀〉
 14) 『鶴林先生文集』 卷2 「詩」 〈和宋敬輔水落臺漁歌九曲〉 序詩

안을 흐르는 시내가 맑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까닭에 그는 어부가를 지었고 이 노래를 어부들이 따라 불렀다. 어부들이 수락대구곡을 오르내리며 어부가를 흥겹게 부르니 푸른 물과 푸른 산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어부가 소리가 들려왔다. 물론 여기서 어부가는 단순히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으면서 부르는 노동요가 아니었다. 이는 수락대구곡을 오르내리며 굽이에 펼쳐진 신령한 地氣와 청정한 기운을 체득한 흥취를 노래한 것이었다. 권방은 假漁翁이 되어서 어부가를 부르며 수락대구곡에 내재하는 자연의 이치를 체득하려 유람을 시작하였다.

Ⅲ. 園林的 특징과 詩世界

1. 제1곡 觀魚臺

수락대구곡 제1곡 觀魚臺는 예천군 보문면 간방리에 위치한다. 석관천의 맑은 물이 내성천에 흘러드는 어름에 자리한 관어대는 우측으로 산이 둘러 있고 좌측으로 논과 밭이 펼쳐 있다. 산이 둘러 있어 시냇물이 이 지점에 이르면 한번 크게 굽이돌아 흘러간다. 굽이도는 곳에는 수심이 깊어서 물고기가 모여드니 이곳을 관어대라 이름한 것으로 추정된다. 관어대에서 동남 방향으로 바라보면 경북선 철도가 지나가고 그 너머로 석관천의 맑은 물이 내성천에 흘러든다.

一曲臺如不繫船	일곡이라 관어대는 배를 매지 못할 듯하니
何時扣柵泝長川	어느 때에 뱃전을 두드리며 장천을 오르나
居人不識觀魚趣	사는 사람 물고기 보는 의치 알지를 못하여
一任銀梭擲暮烟	은빛 노에 맡기고 저문 안개 속에 들어가네 ¹⁵⁾

15) 『鶴林先生文集』 卷2 「詩」 〈和宋敬輔水落臺漁歌九曲〉 一曲詩

제1곡 관어대는 배를 댈 수 없는 굽이었다. 배를 댈 수 없으니 배를 타고 구곡을 유람하는 일도 불가능했다. 권방은 제1곡 관어대에서 수락대구곡 유람을 시작하였는데 배를 타고 구곡을 거슬러 오를 수 없는 점을 안타까워하였다. 그는 어느 때에 뱃전을 두드리며 긴 내를 오를 수 있는가 하였다. 배를 타고 구곡을 유람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이렇게 표현하였다. 권방은 제1곡에서 시냇물에 노니는 물고기를 내려다보았다. 물속을 오가는 물고기를 보면서 그는 자연의 이치를 관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굽이에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의치를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鳶飛魚躍을 통하여 드러나는 天理가 관어대 아래에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러한 이치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권방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배가 가는 대로 흘러가다가 저문 안개 속으로 들어갔다. 그 안개 속에는 수락대구곡의 眞景이 있었기 때문이다.

2. 제2곡 聽澗亭

수락대구곡 제1곡 관어대에서 물길을 따라서 약 300m 정도 거슬러 오르면 시냇물이 한번 크게 굽이도는 지점에 이르는데 이곳이 제2곡 聽澗亭이다. 청간정도 예천군 보문면 간방리에 위치한다. '시냇물 소리를 듣는 정자'라는 의미를 가진 청간정 굽이에는 시내 좌측, 산 아래 부분이 커다란 바위로 되어 있어 시냇물이 바위에 부딪쳐 소리를 내면서 흘러간다. 시냇물 소리를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청간정이라 이름한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산 위에 청간정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근처 마을 주민들은 청간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 지금은 제1곡 관어대에서 청간정에 이르기 위해서는 산길을 따라서 가야 한다. 이 산길이 끝나는

지점에서 시야가 넓어지며 굽이도는 석관천과 주변의 논과 밭이 나타난다.

二曲潭邊聳石峯 이곡이라 못가에는 돌 봉우리가 솟아 있어
 昔人棲息寄從容 옛날 사람 깃들여 지내며 조용히 살았어라
 漁詞舊曲無因聽 지금은 어부사 옛날 곡조를 들을 길 없으니
 汾水秋波隔幾重 분수에 이는 가을 물결 몇 겹이나 막혔는가¹⁶⁾

권방은 제2곡 청간정에 이르러 못가에 솟아 있는 석봉을 바라보았다. 여기서 못은 석관천이 굽이돌며 만든 연못이고 석봉은 시내 우측에 임해 있는 산봉우리이다. 그는 이곳에서 옛 사람들이 조용히 깃들여 살았다고 하였다. 세상의 혼탁한 기운을 사양하고 이 굽이에 은거하며 청정하게 살았다는 말이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옛 사람들은 시냇물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이 소리를 들으며 한가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한가로운 마음은 어부가로 지어져 이 굽이에서 불렀는데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그 노래를 들으며 세상의 근심을 잊을 수 있었다. 그런데 권방이 이 굽이에 이르렀을 때는 어부가를 들을 수 없었다. 그 옛날 龔巖 李賢輔가 지었던 漁父詞¹⁷⁾를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이 점을 안타까워하여 그는 농암이 살았던 汾水가 얼마나 막혔는가 하고 탄식하였다. 그 어부가를 지금 권방이 「수락대어가곡시」를 가지고 다시 이어려 하고 있다.

3. 제3곡 江南曲

제2곡 청간정에서 물길을 따라서 약 500m 정도 거슬러 오르면 마을 앞에 석간천이 굽이도는 지점에 이르는데 이곳이 제3곡 江南曲이다. 간방 3리 마을 앞은 원래 습지였다. 지금은 습지를 매워서 논과 밭을 만들었

16) 『鶴林先生文集』卷2「詩」〈和宋敬輔水落臺漁歌九曲〉二曲詩

17) “李龔巖 嘗作漁父詞” 『鶴林先生文集』卷2「詩」〈和宋敬輔水落臺漁歌九曲〉二曲詩 注

지만 옛날에는 연이 많이 자랐던 습지였다고 한다. 중국 樂府 중에 「採蓮曲」이 있는데 본래 “강남은 연을 취할 만하여라, 연잎이 어이 그리 늘어서 있는가(江南可採蓮 蓮葉何田田)”라는 漢나라 「江南曲」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권방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수많은 연꽃을 볼 수 있는 이 굽이를 강남곡이라 이름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평범한 시골 마을이지만 그 옛날에는 석관천의 맑은 물과 아름다운 연꽃이 어우러져 가경을 이루었던 굽이였다. 지금 이 굽이에서 옛날의 강남곡 풍경을 볼 수 없어서 아쉬울 따름이다.

三曲輕灘失小船 삼곡이라 가벼운 여울에 작은 배도 없으니
採蓮清興幾千年 연꽃 캐는 맑은 흥취 몇천 년이 되었는가
郵娥猶唱江南曲 마을의 어여쁜 아이가 강남곡을 부르는데
楚客鄉愁定可憐 초나라 나그네 향수가 진정으로 가련하네¹⁸⁾

수락대구곡 제3곡을 강남곡이라 명명한 것은 굽이 가득 피어 있는 연꽃 때문이었다.¹⁹⁾ 마을 주민들은 연꽃을 캐기 위해 배를 띄웠을 것이다. 배를 타고 연꽃을 껌으로써 조금이나마 생활에 보탬이 되었을 것이다. 권방은 강남곡에서 작은 배도 띄울 수 없었다. 그는 물가에 서서 연꽃이 가득한 굽이를 바라보며 오랜 세월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연꽃 캐는 맑은 흥취를 생각하였다. 세상에서 좀처럼 맛볼 수 없는 흥취에 그는 한동안 굽이를 떠나지 못하고 그 흥취에 젖어들었다. 그때 어디선가 마을의 아이가 부르는 「강남곡」 노래 소리가 들려왔다. 그 노래는 나그네에게

18) 『鶴林先生文集』 卷2 「詩」, 〈和宋敬輔水落臺漁歌九曲〉 三曲詩

19) 唐詩에 ‘강남에 오늘 밤 비가 내리니, 연꽃 캐는 배를 띄우리라’ 하고, 또 ‘어여쁜 강북의 여자가, 강남곡을 으레껏 부르네’라고 하였다. 黃山谷 시에 ‘자리에 강남 객이 있거든, 춘풍에는 『鸕鶿詞』를 노래하지 마오’라고 하였다.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구슬픈 노래였다. 그 노래를 들으며 권방은 唐詩에 있는 “강남에 오늘 밤 비가 내리니, 연꽃 캐는 배를 띄우리라.” “어여쁜 강북의 여자가, 강남곡을 으레껏 부르네”라는 시구를 떠올리고, 黃庭堅 시에 있는 “자리에 강남 객이 있거든, 춘풍에는 「鷓鴣詞」를 노래하지 마오”라는 시구도 생각났다. 여기서 「자고사」는 唐나라 시대에 귀향을 생각 하는 내용의 詞曲이다.²⁰⁾ 권방은 강남곡의 맑은 흥취와 구슬픈 「강남곡」 노래 소리를 뒤로 하고 다시 물길을 따라서 다른 굽이를 향하여 유람을 떠났다.

4. 제4곡 南山陁

제3곡 강남곡에서 물길을 따라서 약 300m 정도 거슬러 오르면 석관천이 굽이도는 지점에 이르는데 이곳이 제4곡 南山陁이다. 남산수도 예천군 보문면 간방리에 위치한다. 마을 앞에 있는 산을 마을 사람들은 남산이라 부른다. 남산은 아래 부분이 바위로 되어 있고 윗부분이 흙으로 덮혀 있는 산이다. 산 위에는 수령이 오래된 소나무가 뺨뺨이 자라고 있는데 아래로 흐르는 시냇물과 어우러져 한 폭의 풍경화를 이룬다. 실개천 하나가 이곳에서 석관천에 흘러든다.

四曲南山立帽巖	사곡이라 남산에는 모자 모양 바위 솟고
白鷗飛下羽毵毵	하얀 해오라기 내려 앉아 깃털을 드리우네
中年好道家山北	중년에 도를 좋아하여 산북에 집을 지어서
玩月時時到石潭	돈는 달을 완상하며 때때로 석담에 이르네 ²¹⁾

20) “鷓鴣詞 近代思歸之詞曲也” 『山堂肆考』 卷160 「樂府」, 〈鷓鴣詞〉

21) 『鶴林先生文集』 卷2 「詩」, 〈和宋敬輔水落臺漁歌九曲〉 四曲詩

제4곡 南山隱는 은자가 살기 좋은 굽이였다. 권방이 이곳에 이르니 남산에는 모자 모양의 바위가 솟아 있고 흐르는 시내에는 하얀 빛의 해 오라기가 날아서 내렸다. 펼쳐진 정경이 너무 한가롭고 아름다워 그는 唐나라 시인 王惟 시의 의취에 이를 비겼다.²²⁾ 왕유는 중년의 나이에 道를 좋아해 남산 모퉁이에 집을 짓고 살았다. 그가 좋아한 도는 다름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였을 것이다. 하나의 어긋남도 없이 전개되는 자연의 이치는 왕유가 가장 함께하고 싶은 도였을 것이다. 권방도 도를 좋아하여 남산 북쪽에 집을 지었다. 그리고 솟아 오른 달을 완상하며 때때로 석담에 이르렀다. 그가 때때로 석담에 이른 것은 석담에 비치는 달을 통해 자연의 이치를 체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잔잔한 석담 물은 자신의 마음이고 물에 비친 달은 그가 받은 明德이라 할 수 있다.

5. 제5곡 虹橋

수락대구곡 제5곡은 虹橋이다. 홍교는 예천군 감천면 포리에 위치한다. 제4곡 남산수에서 물길을 따라서 약 800m 정도 거슬러 오르면 간방교에 이르는데 이 굽이가 홍교이다. 간방교에서 석관천을 내려다보면 시내에 오래된 돌다리를 볼 수 있는데 홍교의 흔적으로 추정된다. 지금은 개발로 인하여 과거의 모습을 상상하기 어렵지만 홍교가 있었던 자리는 분명하다. 구곡원림에서 제5곡은 원림을 설정하고 경영했던 선비의 은거지가 있는 곳인데 권방이 살았던 곳이 이 지점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있으니 홍교를 제5곡으로 설정한 듯하다.

22) 王摩詰 시에 ‘중년에 도를 매우 좋아하여, 늘그막에 남산 모퉁이에 집을 지었네’라고 하였다. “摩詰詩 中年頗好道 晚家南山隱” 『鶴林先生文集』 卷2 「詩, 〈和宋敬輔水落臺漁歌九曲〉 四曲詩 注

五曲沿溪興轉深 오곡이라 시내를 따라가니 흥이 더욱 깊고
 人烟依約出疎林 마을 연기 어렴풋이 성근 숲에 솟아오르네
 石橋不斷虹橋路 홍교의 길에는 돌다리가 끊어지지 않으니
 溱洧無勞惠濟心 노니는 사람이 건너는 데 수고롭지 않아라²³⁾

제5곡은 마을이 있었던 굽이이다. 권방은 한동안 이곳에 살았다. 그러나 지금은 그 흔적을 찾기가 쉽지 않다. 주변의 개발과 지형의 변화로 그 옛날 한적한 마을을 상상하는 일이 쉽지 않다. 권방은 제5곡에 이르러 시내를 따라서 거닐며 유람을 하였다. 시내를 따라서 거닐수록 유람의 흥은 더욱 깊어졌다. 저 멀리 바라보니 마을에는 밭짓는 연기가 성근 숲에서 솟아올랐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시내에는 사람들이 다니는 돌다리가 있었다. 이 다리 때문에 구곡을 유람하는 사람들이 시내를 쉽게 건널 수 있었다. 일반 사람들이 보면 제5곡은 평범한 경관을 가진 굽이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권방에게 이곳은 평범한 굽이가 아니었다. 시내를 따라서 거닐면 흥이 절로 깊어지는 공간이었다. 그 흥은 이 굽이에 펼쳐진 자연에서 얻은 흥이니 자연을 통해 드러나는 도를 얻은 즐거움이었다.

6. 제6곡 石門塢

수락대구곡 제6곡 石門塢도 예천군 감천면 포리에 있다. 제5곡 홍교에서 물길을 따라서 약 400m 정도 거슬러 오르면 예천충효관 앞 시내에 이르는데 이 굽이가 석문오이다. 지금은 주변의 대대적 개발로 인하여 석문을 찾을 수 없지만 옛날에는 돌이 솟아 문을 이루고 그 안에 마을이 있었다고 한다. 석문을 통과해 들어가야 마을에 이를 수 있었던 이 굽이

23) 『鶴林先生文集』 卷2 「詩」 〈和宋敬輔水落臺漁歌九曲〉 五曲詩

가 지금은 널따란 평지와 시내만 펼쳐진 공간이 되었으니 桑田碧海라는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석관천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석문의 돌을 많이 사용하였다고 하는데 현재 시냇가와 시내 바닥에 있는 많은 돌에서 석문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六曲高厓隗水灣	육곡이라 높은 언덕 물굽이에 우뚝 솟아 있고
雙巖對峙作重關	두 바위가 마주하여 육중한 관문이 되었어라
邈迤細路穿將去	구불구불 이어지는 좁은 길 뚫고 지나가려고
回首前遊亦等閒	지나온 길을 머리 돌려 보니 또한 한가롭구나 ²⁴⁾

권방이 제6곡 석문오에 이르니 물굽이에 임하여 언덕이 높이 솟아 있고 두 바위가 마주하여 석문을 이루고 있었다. 석문 안에 있는 마을로 가는 작은 길이 구불구불 이어지며 석문을 거쳐서 지나갔다. 높은 언덕과 두 바위가 굽이를 두르고 있어서 이 굽이에 있는 마을을 석문오라고 하였다. 석관천을 거슬러 오르던 권방은 석문오를 바라보고는 세상의 근심이 이르지 않아서 한가롭다고 생각하였다. 권방은 석관천을 오르면서 각 굽이의 경관을 관조하며 자연의 이치를 체득했기 때문에 이 굽이에서 한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7. 제7곡 石出臺

제6곡 석문오에서 물길을 따라서 약 250m 정도 거슬러 오르면 시내에 수많은 돌들이 펼쳐진 지점에 이르는데 이 굽이가 제7곡 石出臺이다. 여러 가지 형상을 한 수많은 돌들이 시내에 널려 있고 그 위로 석관천 맑은 물이 흘러가며 아름다운 경관을 이룬다. 수락대를 찾는 사람들은 이

24) 『鶴林先生文集』 卷2 「詩」 〈和宋敬輔水落臺漁歌九曲〉 六曲詩

굽이에 전개되는 가경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감탄을 금하지 못하였다.

七曲層層石出灘	칠곡이라 층층의 돌들이 여울에 솟아 있고
平臺削立倚雲看	깎아지른 듯한 평평한 대 구름 속에 보이네
山高岸斷江聲在	산이 높고 언덕진 곳에 흐르는 강물 소리
不改冬天霜露寒	겨울날 서리 이슬 차가워도 변하지 않아라 ²⁵⁾

권방이 石出臺에 이르니 층층의 돌들이 물 위에 솟아 있었다. 굽이돌며 흐르는 시내에 헤아릴 수 없는 돌들이 여러 가지 형상을 하면서 펼쳐져 있었다. 그중에서 깎아지른 듯이 솟아 있는 돌은 대의 형상을 하고 있어 권방은 그 돌에다 '석출대'라고 새겼다. 석출대는 소동파 「赤壁賦」의 '수위가 내려가니 돌이 솟는도다(水落石出)'라는 말을 취하여 명명하였다.²⁶⁾ 「적벽부」의 구절은 여름에 많이 흐르던 물이 겨울이 되어서 수량이 줄어들면서 돌들이 드러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권방의 시에는 「적벽부」의 의미와는 다르게 표현되었다. 석출대에 흐르는 물소리는 서리와 이슬이 내리는 겨울에도 변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겨울이 되어도 시내의 수량이 줄어들지 않아서 시냇물 소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권방에게 석출대의 가경은 계절에 관계없이 전개되었다.

8. 제8곡 水落臺

수락대구곡 제8곡은 水落臺이다. 제7곡 석출대에서 물길을 따라서 약

25) 『鶴林先生文集』 卷2 「詩」 〈和宋敬輔水落臺漁歌九曲〉 七曲詩

26) 석출대의 이름은 蘇東坡의 「赤壁賦」에 '水位가 내려가니 돌이 솟는도다'라는 구절에서 취했으나 시의 뜻은 또 그 말과는 반대가 되었다. "臺名 取東坡賦 水落石出之句 而詩意 又反其語云" 『鶴林先生文集』 卷2 「詩」 〈和宋敬輔水落臺漁歌九曲〉 七曲詩注

250m 정도 거슬러 오르면 수락대 바위 앞 시내에 이른다. 수락대 바위는 西厓 柳成龍이 1602년 이곳에 들러서 승경을 감상했던 명소이다.²⁷⁾ 이후, 鄉賢으로 수많은 후학을 길러낸 鶴沙 金應祖(1587~1667), 사림의 宗師로 추앙받던 木齋 洪汝河(1620~1674) 등의 문인뿐만 아니라 지역의 많은 선비들이 이곳에서 詩會를 가졌다.²⁸⁾ 수락대 바위 앞 시내에는 커다란 바위가 자리하고 그 위로 맑은 물이 흘러간다. 수락대 바위 위에 ‘水落洞天’ 네 글자를 새겨놓았는데 이 글자는 放汕 趙鳳遠(1855~1933)이 새긴 것이다. 그 바위 뒤에 또 ‘水落臺’ 세 글자를 새겨놓았는데 이 글자는 石窩 權禕가 새긴 것이다. 이 바위 옆 바위에는 ‘西厓先生 杖屨之所’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수락대 바위 위에 1916년 감천의 유지들이 뜻을 모아 정사를 세웠는데²⁹⁾ 홍수로 인하여 유실되자 예천군이 2001년 현 위치에 다시 복원하였다.

八曲臺巖正面開	팔곡이라 수락대 바위가 정면에서 열리고
晴雷飛雪共旋洄	마른 우레 날리는 눈발이 함께 휘어도네
前賢芳躅今誰繼	전현이 남기신 자취 지금 누가 이어가나
時有閒雲自去來	때때로 한가한 구름만 스스로 오고 가네 ³⁰⁾

권방이 제8곡 수락대에 이르니 계절이 겨울이라, 시내의 수위가 내려가 수락대 바위가 굽이의 정면에 우뚝 솟아 있었다. 때마침 굽이에는 마른 우레가 치고 날리는 눈발이 휘돌다 땅 위에 내렸다. 수락대의 모습은

27) “昔皇明萬曆壬寅春 西厓老先生 北遊越水丹山 閱盡嶠南名區勝狀” 「水落臺創建記」,
 28) “其後 金應沙 洪木齋 兩先生 招致數郡之纓弁 題詠以記感 前不及之矣 餘韻難理之歎 而自發於唱酬聯篇之日矣” 「水落臺創建記」,
 29) “今丙辰春 二三同志 又聚鳩材 以致室屋臺 於是乎成矣” 「水落臺創建記」,
 30) 『鶴林先生文集』 卷2 「詩」, 〈和宋敬輔水落臺漁歌九曲〉 八曲詩

제대로 볼 수 있었지만 겨울이라 사람들이 찾지 않아 쓸쓸한 느낌이 들었다. 권방은 옛날 여러 현인들이 찾았던 수락대를 회상하였다. 수락대의 가경을 찾아온 여러 문인들이 詩會를 열던 때를 생각하였다. 그는 그때와는 달리 지금은 수락대 시회를 이어가지 못한 점을 안타까워하였다. 전 현이 남기신 자취를 지금 누가 이어가나 하는 말이 권방의 이러한 마음을 잘 나타낸다.

9) 제9곡 登瀛谷

수락대구곡 제9곡은 登瀛谷이다. 등영곡도 예천군 감천면 포리에 위치한다. 제8곡 수락대에서 물길을 따라서 약 300m 정도 거슬러 오르면 德栗橋에 이르는데 이 굽이가 등영곡이다. 이 지점에 이르면 계곡은 끝나고 넓은 들이 펼쳐지면서 사람 사는 마을이 나타난다. 덕울교에 서면, 수락대 계곡이 끝나는 지점에서 논과 밭이 전개되고 저 멀리 마을이 자리하는 평상의 공간을 조망할 수 있다. 그러니 제9곡 등영곡에서는 이렇다 할 가경을 찾을 수 없다. 아름다운 경치를 찾아서 수락대구곡을 거슬러 올라온 遊人에게 이 굽이의 경관은 실망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실망한 유인들은 다시 석관천을 따라서 가경을 찾아 다시 길을 떠났을 것이다.

九曲盤回境豁然	구곡이라 땅이 평평하여 경계 확 넓어지고
桑麻菽粟映前川	상마와 서속의 모습이 앞 시내에 비치어라
道人不復登瀛想	도인은 영주에 오를 생각 다시 하지 말라
平地安身只信天	평지에서 몸을 편히 함이 진정한 동천일세 ³¹⁾

31) 『鶴林先生文集』 卷2 「詩」 〈和宋敬輔水落臺漁歌九曲〉 九曲詩

권방은 제9곡 등영곡에서 평평한 들판을 만났다. 이제까지 닫힌 공간과는 달리 경계가 확 넓어지고 사람이 살고 있는 열린 공간을 만났다. 들판에는 뽕, 삼, 콩, 조 등이 재배되고 그 가에는 시내가 흐르고 있었다. 그러니 어디를 둘러봐도 아름다운 경관을 찾을 수 없었다. 일반 사람들이 실망할지도 모르는 굽이를 바라보며 권방은 도인에게 영주를 찾지 말라고 하였다. 평평한 지형인 이 굽이에서 몸을 편히 하는 것이 진정한 동천이라고 하였다. 도인은 도를 찾는 사람이고 영주는 도인이 지향하는 이상의 세계이다. 도를 찾는 사람에게 도가 전개되는 세계인 영주를 생각하지 말고 등영곡에 머물라고 한 것은 이 굽이가 그들이 찾는 영주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권방은 등영곡이 진정한 동천이라 하였다. 사람이 살아가는 평범한 이 굽이에 도인이 찾고자 하는 도가 있다는 것이다.

IV. 결 론

본고에서는 예천지방에 존재하는 은산구곡과 수락대구곡 중에서 수락대구곡 원림을 중심으로 그 원림의 설정과 경영과정, 구곡의 위치, 원림적 특징 등을 고구하고 학림 권방이 지은 수락대어가구곡시의 시세계를 분석하였다. 지금까지의 작업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수락대구곡 원림을 가정 먼저 설정한 사람은 四勿齋 宋相天이었으나 본격적으로 설정하고 경영한 사람은 鶴林 權訪이다. 수락대구곡시는 송상천이 젊은 시절 권방의 은거지인 수락대를 방문하고 「水落臺九曲詩」를 지어 권방에게 보내자 권방이 이에 화답하는 「水落臺漁歌九曲詩」를 지었으며 뒤에 권방의 구곡시에 대해 石窩 權禕가 차운하여 「水落臺九曲詩」를 지었던 것이다.

2. 권방이 설정한 수락대구곡의 각 지점을 고증한 결과, 제1곡 觀魚臺는 예천군 보문면 간방리에 위치하는데 석관천의 물이 내성천에 흘러드는 어름에 자리하고 있다. 제2곡 聽澗亭은 제1곡 관어대에서 물길을 따라 약 300m 정도 거슬러 올라 시냇물이 한번 크게 굽이도는 지점이다. 제3곡 江南曲은 제2곡 청간정에서 물길을 따라 거슬러 약 500m 정도 떨어진, 마을 앞에 석간천이 굽이도는 곳이다. 제4곡 南山隱는 제3곡 강남곡에서 약 300m 정도 거슬러 올라 석관천이 굽이도는 지점이다. 제5곡 虹橋는 4곡 남산수에서 약 800m 정도 떨어진 현재의 간방교에서 석관천을 내려다보면 시내에 오래된 돌다리를 볼 수 있는데 이 다리가 홍교의 흔적으로 추정된다. 제6곡 石門塢는 예천군 감천면 포리에 있는데 제5곡 홍교에서 약 400m 정도 떨어진 예천충효관 앞 시내에 이르는데 이 굽이가 석문오이다. 그리고 제6곡 석문오에서 약 250m 정도 거슬러 오르면 시내에 수많은 돌들이 펼쳐진 지점에 이르는데 이 굽이가 제7곡 石出臺이다. 제8곡 水落臺는 제7곡 석출대에서 약 250m 정도 떨어진 수락대 바위와 수락대 精舍가 있는 곳이다. 제9곡은 제8곡 수락대에서 물길을 따라 약 300m 오르면 德栗橋에 이르는데 이 굽이가 등영곡이다.

3. 권방은 시냇물에 노니는 물고기를 내려다보고 鳶飛魚躍를 통하여 드러나는 天理를 발견하였고 시냇물 소리를 들으며 한가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며 한가로운 마음은 어부가로 지어져 그 노래를 들으면서 세상의 근심을 잊을 수 있었다고 하였다. 그는 물가에 서서 연꽃이 가득한 굽이를 바라보며 오랜 세월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연꽃 캐는 맑은 흥취를 생각하고 그 흥취에 젖어들기도 하였다. 석담에 비치는 달을 통해 자연의 이치를 체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잔잔한 석담 물은 자신의 마음이고 물에 비친 달은 그가 받은 明德이라 생각하였다. 그리고 또한 시내를 따라 거닐면 흥이 절로 깊어지는데 이는 자연에서 얻은 흥이니 자연

을 통해 드러나는 도를 얻은 즐거움 때문이라 하였다.

권방은 석관천을 오르면서 각 굽이의 경관을 관조하며 자연의 이치를 체득했기 때문에 이 굽이에서 한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고 석출대에 흐르는 물소리는 서리와 이슬이 내리는 겨울에도 변하지 않는다고 하여 항상성을 느꼈다. 그리고 수락대의 가경을 찾아온 여러 문인들이 詩會를 열던 때를 생각하면서 前賢이 남긴 자취를 잇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내었다.

특히 권방은 제9곡 등영곡에서 이제까지의 닫힌 공간과는 달리 경계가 확 넓어지고 사람이 살고 있는 열린 공간을 만났으나 어디를 둘러봐도 아름다운 경관을 찾을 수 없었다. 일반 사람들이 실망할지도 모르는 굽이를 바라보며 道人에게 瀛州를 찾지 말라고 하였다. 평범한 지형인 이 굽이에서 몸을 편히 하는 것이 진정한 동천이라고 생각하였다. 도를 찾는 사람에게 도가 전개되는 세계인 영주를 생각하지 말고 등영곡에 머물라고 한 것은 이 굽이가 그들이 찾는 영주라는 의미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평범한 이 굽이에서 도인이 찾고자 하는 도, 즉 平常의 道가 있다고 하였다.

4. 결국 권방은 「水落臺漁歌九曲詩」를 통하여 수락대구곡을 道에 이를 수 있는 淸淨의 空間으로 보았으며 그가 추구한 것은 別유천이 아니라 平常의 道임을 드러내었다. 따라서 이 「水落臺漁歌九曲詩」는 托物寓意의 詩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姜正瑞, “九曲歌系 詩歌에 나타난 空間이미지와 志向意識”, 경북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3. 5-38쪽.
- 姜正瑞, “朝鮮後期の 武夷權歌 詩認識”, 東方漢文學 17, 동방한문학회, 1999. 19-30 쪽.
- 권정은, “樓亭歌辭의 공간인식과 미적 체험”, 한국시가연구 13, 한국시가학회, 2003. 205-230쪽.
- 金文基, “九曲歌系 詩歌의 系譜와 展開樣相”, 국어교육연구 23, 경북사대, 1991. 35-86쪽.
- 김문기, “退溪九曲과 退溪九曲詩 연구”, 退溪學과 韓國文化 42, 慶北大學校 退溪研究所, 2008. 241-274쪽.
- 김문기, “陶山九曲 園林과 陶山九曲詩 고찰”, 退溪學과 韓國文化 43, 慶北大學校 退溪研究所, 2008. 193-233쪽.
- 金文基, “陶山九曲의 設定과 陶山九曲詩의 展開”, 退溪의 文學과 思想, 제22차 退溪學國際學術會議, 國際退溪學會·嶺南退溪學研究院, 2009. 296-324쪽.
- 김문기, “高山七曲과 高山七曲詩 연구”, 退溪學과 韓國文化 47, 慶北大學校 退溪研究所, 2010. 213-239쪽.
- 金文基, “張緯恒의 雲浦九曲 園林과 雲浦九曲詩”, 退溪學과 儒敎文化 49, 慶北大學校 退溪研究所, 2011, 137-164쪽.
- 김성룡, “고려 중기 樓亭文學의 형성과 山水美 발견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107,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2002. 319-346쪽.
- 윤진영, ‘朝鮮時代 九曲圖의 收容과 展開’, 미술사학연구 217, 한국미술사학회, 1998. 61-91쪽.
- 최기수, “曲과 景에 나타난 韓國傳統造景構造의 解釋에 관한 研究”,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1989. 15-38쪽.

Abstract

A Study on Surakdaegugok(水落臺九曲) and Surakdaeeogagugok- poetry(水落臺漁歌九曲詩)

Kim, Mun-Kie

This study analyzed the process, in which Gwon Bang(權訪) established and managed Surakdaegugok(水落臺九曲), and the plantation-based characteristic of Surakdaegugok, and considered poetic world of Surakdaeeogagugok-poetry(水落臺漁歌九曲詩) composed by Gwon Bang.

A person, who first established the plantation of Surakdaegugok, was Samuljae(四勿齋) Song Sang-cheon(宋相天). However, A person, who established and managed it in earnest, is Hakrim(鶴林) Gwon Bang. As for Surakdaegugok-poetry, Song Sang-cheon visited Surakdae(水落臺), which is Gwon Bang's safe haven in his early days, and composed Surakdaegugok-poetry and sent it to Gwon Bang. Then, Gwon Bang composed Surakdaeeogagugok-poetry in response to this. Later, Seok Wa(石窩) Gwon Wee(權禕) composed Surakdaegugok-poetry with rhyme-matching of Gwon Bang's Gugok-poetry(九曲詩).

Surakdaegugok established by Gwon Bang comprises the first turn Gwaneodae(觀漁臺), the 2nd turn Cheongganjeong(淸澗亭), the 3rd turn Gangnamgok(江南曲), the 4th turn Namsansu(南山陲), the 5th turn Honggyo(虹橋), the 6th turn Seokmuno(石門塢), the 7th turn Seokchuldae(石出臺), the 8th turn Surakdae(水落臺), and the 9th turn Deungyeonggok(登瀛谷).

Gwon Bang regarded Surakdaegugok as clean space available for reaching Do(道) through Surakdaeeogagugok-poetry, and revealed that what he pursued is not Byeolyucheon(別有天), but is usual Do(道).

Ultimately, Gwon Bang deemed Surakdaegugok as clean space available for reaching Do(道) through Surakdaeeogagugok-poetry, and revealed that what he pursued is not a different world, but is usual Do(道). Accordingly, Surakdaeeogagugok-poetry can be said to be poem in Takmulwoowi(托物寓意).

Key Word

Surakdaegugok(水落臺九曲), Surakdaeeogagugok-poetry(水落臺漁歌九曲詩), Surakdaegugok-poetry(水落臺九曲詩), Muwidoga(武夷權歌), Muwigugok(武夷九曲), Surakdae(水落臺), Eunsangugok(隱山九曲), Takmulwoowi(托物寓意)

- 논문투고일 : 2011.12.16 심사완료일 : 2012.2.1 게재결정일 : 2012.2.10